



#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 흔들리지 않는 목표

노영환

(본회 전무이사)

방학이 되어 시골 부모님께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 밭을 갈게 되었다. 물론 요즘에야 경운기로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쟁기를 소가 끌고 밭을 갈았다. 아버지는 똑바로 가는데 아들이 만든 이랑은 꾸불꾸불 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앞에 목표를 세우고 가면 곧바로 갈 수 있고 이랑이 반듯하게 된다고 노하우를 일러 주었다. 그러나 아들이 가는 이랑은 역시 꾸불꾸불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어디에 목표를 두었느냐고.

아들이 대답하였다. 앞에 있는 황소를 목표물로 하였다고.

아버지는 두번째 노하우를 일러 주었다. 목표물이 움직이면 아무 것도 안된다는 진리를 일러 주었다.

이번에 아들은 포플라 나무를 목표물로 정했다. 그랬더니 아버지와 같이 반듯하게 밭이랑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농축산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라 농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농업 없이도 나라는 지탱되는 것일까? 먹거리 문제가 남의 나라에 종속되어도 천사와 같은 나라에서 수입하게 되면 오히려 이익일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나라가 있을까? 등등이다.

수입최고기 물량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소 사육 기반이 무너진다고 야단이다.

2000년대 한국의 축산이라는 정책개발이나 발전 목표를 만드는 작업이 조야에 부산하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나오고, 각종 목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개의 경우 2천년에 가면 우리 농촌이 쾌적한 환경의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농촌의 여론조사는 앞으로 10여년만 참고 견디면 될터인데, 기회만 주어진다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기 좋은 것이 되는 데도 말이다.

그동안 축산진흥,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농촌진흥(농촌진흥청도 있음), 농공병진, 전업농 육성, 농자천하지대본 등 좋은 말을 많이 들어 왔고, 복지농촌건설, 복합영농 등 많은 목표물들을 세웠지만 이러한 목

66

2000년대의 양돈산업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물로 정해야 한다. 소를 앞세우고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들은 목표를 올바르게 정해야 곧바로  
 나아 갈 수 있다.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농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목표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리 저리 옮기는 일은 결국 발이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일이다.

99

표물들을 보고 가다보면 목표물이 슬그머니 움직이거나 사라져 버려 당황하게 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헤일수 없이 수많은 날을 목표물을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들이 목표물이 움직이므로써 가슴에 빨강계명이 든 경우가 많았었다. 담배농사에서 고추농사로, 닭에서 소로, 돼지로 목표가 흔들릴 때마다 엉망이 되었던 경험을 기억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화훼·양돈·양계를 농가소득 작목 목표물로 정했다는 고급관리의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 또 얼마전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보면 수출산업화 육성 종목으로 사과·배·돼지고기·잡업 등이 목표물로 선정되었다.

물론 잘 돼야 되지만 우선 소득작목이 별로 없는 농촌에서 정부가 선정한 목표물로 바꾸었을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이다.

지금 작업이 한창인 2000년의 양돈산업에 대한 청사진도 흔들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불안하다.

흔들리지 않는 목표물을 정하되 소를 앞세우고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야 곧바로 나아 갈 수 있다. 주위의 구경꾼들이 목표물을 이리저리 옮

겨 놓는다면 2000년에 가서 1989년을 뒤돌아 볼때 꾸물꾸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목표물을 정하는데 생산자의 참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산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좋은 예로 이번 한미 통상협상의 마지막 관문인 농산물 협상도 한국측 대표단이 우선협상대상관행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었다. 대표단이 모두 귀국한 후에 미국측으로 부터 반미 감정을 고려하여 우리측 의견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연락을 해 온 것을 보아도 국내의 여론이 뒷받침 되지 않는 대표는 힘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여의도에서의 농민들의 목소리가 워싱턴에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을 위한 목표물과 농민들이 원하는 목표물은 다르다.

이제는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농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목표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리 저리 옮기는 일은 결국은 발이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뿐이다. **■**